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중남아시아 6개국의 인프라 개발 관련 이슈와
당행 지원방향

주요 동향

◇ 미국, 고용지표 호조세 불구, 금융정책 변동 가능성 낮아

- 6월 비농업부문 고용 전월대비 28만7천명 증가, 예상치(18만명) 상회,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월비 0.1%p 상승한 62.7% 기록
-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인원의 증가의 영향으로 전월비 0.2%p 상승한 4.9% 기록
-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7월 정책금리는 동결될 전망

◇ 이탈리아, 브렉시트 결정 후 은행 주가 폭락·부실채권 문제 부각

- 브렉시트 결정 뒤 은행 대출의 17%에 달하는 부실채권의 위험이 부각되며 이탈리아 은행들의 주가가 평균 30% 이상 폭락
- 이탈리아 은행 부실대출 액수는 3,600억 유로(3,960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대비 4배 증가, 유로존 전체 부실채무의 절반 차지,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 5%보다 높은 수준
- 이탈리아 정부는 400억 유로(52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투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2014년 구제금융 반대 규정을 도입한 EU의 승인 문제로 대립 중

◇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으로 아베노믹스 강화 전망

-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총 121의석중 75석 확보)하며 개헌 정족수 확보
- 최근 엔화 강세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 경제적으로 아베노믹스 밖에 없다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
-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연기(2017년 4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

주요 동향

◇ 브렉시트 결정 이후 주요국 정책 대응

-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시중유동성 공급, △주요국 통화스왑, △통화 정책 추가완화, △외환시장 개입, △은행권 보호,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대응 발표
- (영국) 통화·금융안정을 위한 2,500억 파운드 공급 준비, 금리인하, 양적완화 확대 및 법인세(20%→15%) 인하 등 재정지출 확대, 은행권 경기대응완충자본 증액 지원 등 자본규제 완화계획 강구
- (ECB) 양적완화 매입액 확대 및 외화 유동성 공급, 유동성 경색시 영국 및 본토 유럽계 은행 지원계획 시사, 대형은행 점검 지속,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 촉구 등
- (EU) 역내 외무장관 대책 논의, 런던소재 유럽은행청(EBA)등 EU기관 이전계획(파리 또는 프랑크푸르트) 시사, 역내 은행권 뱅크런시 모든 수단 강구 발표, 9월 특별 EU정상회의 계획 중
- (미국) 해외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을 통한 달러 유동성 공급 준비, 자국 은행 점검 지속, EU 및 영국과 무역협상 진행 계획 발표
- (중국) 위안화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가능성 시사, 2개월래 최대 규모인 3,400억 위안의 시중 유동성 공급

◇ 한국, 6월 수출 2.7% 감소 · 하반기 수출 소폭 회복세 전망

-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한 453억 달러, '15년 6월 이후 최소 감소율 및 두 달 연속 한자리 수 감소율 기록
- ※ 수출증가율(%) : △19.0(16.1월)→△13.0(2월)→△8.1(3월)→△11.2(4월)→△6.0(5월)→△2.7(6월)
- 품목별 : 선박(29.6%), 컴퓨터(19.8%)는 증가, 반도체(△0.5%), 차부품(△0.5%), 가전(△0.7%), 무선통신기기(△1.4%) 등은 감소폭 축소, 석유화학(△10.7%), 자동차(△12.3%), 평판디스플레이(△25.2%)는 부진 지속

① 외환시장

구 분	'15년말	'16. 7. 1	'16. 7. 8	전주비
₩/US\$	1,172.5	1,145.0	1,161.8	16.8
₩/100¥	974.1	1,113.9	1,157.1	43.2
CNY/US\$	6.4912	6.6565	6.6910	0.0345
¥/US\$	120.4	102.8	100.4	△2.4
US\$/€	1.0930	1.1076	1.1080	0.0004

② 채권시장

구 분	'15년말	'16. 7. 1	'16. 7. 8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1.66	1.21	1.22	0.01
미국 국채(10년)	2.27	1.47	1.39	△0.08

③ 주식시장

구 분	'15년말	'16. 7. 1	'16. 7. 8	전주비
한국 KOSPI	1,961.31	1,987.32	1,963.10	△24.22
미국 DJIA	17,425.03	17,949.37	18,146.74	197.37

④ 해운시장

구 분	'15년말	'16. 7. 1	'16. 7. 8	전주비
BDI 지수*	478	677	703	26
HRCI 지수**	449	440	437	△3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유 종	'15년말	'16. 7. 1	'16. 7. 8	전주비
WTI유 현물	37.04	48.99	45.41	△3.58
Brent유 현물	37.28	50.35	46.76	△3.59
두바이유 현물	32.19	45.19	42.50	△2.69

- ◆ 미개척 시장이자 천연가스 등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6개국의 인프라 개발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당행의 지원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함.

I. 중앙아시아 6개국* 개요

*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중앙아시아 6개 국가들의 특징

- (지리적) 러시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카스피해로 둘러싸인 내륙국가로 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 위치.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2의 중동'으로 간주
- (민족·언어적) 돌궐(Turk)족이 민족적 기원이며, 11세기 번영한 셀주크 투르크의 서진(西進)으로 현재의 위치에 터를 잡음.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아제르어 모두 터키어와 같은 알타이어 계열임. 소비에트 연방 일원이었으나 1991년 독립

〈그림1〉 중앙아 6개국 지리적 위치 및 셀주크 투르크 왕조 영토



- (경제적) 면화 등 농업과 에너지 개발 및 활용이 주력 산업이며, 러시아발 근로자 송금 및 제품 수입으로 對러시아 경제 의존도 높음. 최근 EU, 중국, 터키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꾀하고 있어 동 지역이 포스트 중동으로 각광

□ 국가개황 및 자원보유 현황

- (경제성장) 그동안 에너지 개발, SOC 투자 확대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세 다소 둔화
- (에너지자원 보유) 카스피해 연안 4개국(카자흐, 아제르, 투르크메, 우즈베크)이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보유국임. 이들 4개국을 합친 총 에너지 보유현황은 원유 세계 10위, 천연가스 세계 4위 수준임

구분	국가명	GDP성장률 (%)	1인당 GDP (달러)	총인구 (백만명)	에너지 자원 현황 (세계순위)	
					원유 (bb)	가스(tcf)
I 그룹 (자원보유국)	카자흐스탄	1.2	9,796	17.4	30(11)	85(14)
	아제르바이잔	1.1	5,739	9.4	7(19)	35(24)
	투르크메니스탄	6.5	6,622	5.7	0.6(43)	265(5)
	우즈베크스탄	8.0	2,121	30.6	0.6(43)	65(19)
	소 계				38.2(10)	450(4)
II 그룹 (자원미보유국)	키르기즈	3.5	1,113	5.7	-	-
	타지키스탄	3.0	922	8.3	-	-
러시아		-3.7	9,055	140	80(8)	1,688(1)

* 이란 : 원유 158(4), 천연가스 1,201(2) / 사우디 : 원유 268(2), 천연가스 294(4)

** bb : billion barrels / tcf : trillion cubic feet

〈그림2〉 카스피해 연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원유 및 천연가스 부존 현황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 '15년 말 현재 수출 21억 달러, 수입 3억 달러로 흑자이나 미미한 수준
- (투자) '15년 말 현재 직접투자액은 34억 달러 (전체의 1.1%)
- (해외건설) '15년 말 현재 건설 수주 누계액은 321억 달러 (전체의 4.4%)

〈표 2〉 우리나라의 對중앙아시아 경제교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교역(2015)		직접투자 (‘15말 누계)	건설수주액 (‘15말 누계)
		수출	수입		
I 그룹 (자원보유국)	카자흐스탄	455	305	2,573	10,651
	우즈베키스탄	1,284	16	643	9,802
	투르크메니스탄	182	-	1	10,036
	아제르바이잔	123	3	5	1,395
II 그룹 (자원미보유국)	키르기즈	80	1	91	191
	타지키스탄	20	4	60	6
중앙아시아 6개국 소계		2,144 (0.4%)	329 (0.1%)	3,373 (1.1%)	32,081 (4.4%)
러시아		4,686	11,308	2,329	10,179
세 계		526,757	436,499	312,822	722,239

II. 지역 내 인프라 개발 현황과 중국의 일대일로

1. 중앙아시아 인프라 현황과 진출 필요성

□ 중앙아시아 인프라 현황

- (열악한 인프라 수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하위권(전체 160개국 중 카자흐스탄 제외 나머지 국가 110위 이하)에 속함.
- 기존 물류 인프라의 노후 외에도 신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건설자금 필요

〈표 3〉 중앙아시아 6개국 인프라 부문 국제경쟁력 현황(2015)

국 가	종합 순위	분야별 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경쟁력
카자흐스탄	77	86	65	82	92
우즈베키스탄	118	114	91	130	116
투르크메니스탄	140	143	103	127	145
아제르바이잔	125	82	68	113	149
타지키스탄	146	156	150	152	151
키르기즈	153	150	130	151	143
러시아	99	141	94	115	72
한 국	24	26	20	27	25

주: 2015년 전체 평가대상국은 160개 국가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6.

□ 우리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필요성

-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 수요 증대) 도로·철로 건설 및 공항·항만 개발 등을 통한 역내 물류 중심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중앙아시아 공통)
⇒ 우리 건설사의 참여기회 확대로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효과
- 이외 신도시·경제특구 건설 및 카스피해 항만 개발(카자흐, 투르크멘, 아제르), '17년 EXPO 개최(카자흐)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 수요
- (자원부국 중심의 자원개발 및 관련 플랜트 건설 수요 증대) 투르크멘 등 자원 부국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설비 현대화 등 다양한 Upstream-Downstream 개발 프로젝트 다수 발주
-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단지 건설(아제르), 천연가스의 수송 및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가스관 및 플랜트 건설(카자흐, 아제르, 투르크멘), 풍부한 수자원 활용 수력 발전소 건설(키르기즈, 타지크)
-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 교역 다변화 추진으로 우리기업 수출 증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교통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운송로 확보 강화

- 중국, 인도, 유럽과의 연결 수송루트 개발을 통해 기존의 러시아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시도 ⇒ EU, 중국, 터키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자유무역지대 확충 등 에너지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의도 ⇒ 수출기업의 거점국가 선정 및 이를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진입 강화 필요 (당행 해외투자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

2.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AIIB 지원

□ 일대일로, 중국 굴기(崛起)를 위한 세계 신경제질서 구축 포석

-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선출 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제창,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일대일로 1단계 사업 완료 목표

* 임기 5년(연임 가능)이며, 당정군 권력을 장악한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시진핑 주석이 연임할 경우 2023년까지 집권 가능

〈그림 3〉 중국 일대일로와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현황



□ AIIB,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 수행기관

- AIIB는 실크로드 노선상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에 초점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대일로 추진 핵심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AIIB 지원 자금 확보 용이
- 지난 6월 25일 AIIB는 현재까지 총 4건 5.9억 달러(총사업비 23.8억 달러) 지원 발표
 - 기지원 4건 중 3건이 ADB, EBRD 등 MDB와 공동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지원 예정인 5개 프로젝트도 MDB, 현지국 정부 등과 공동지원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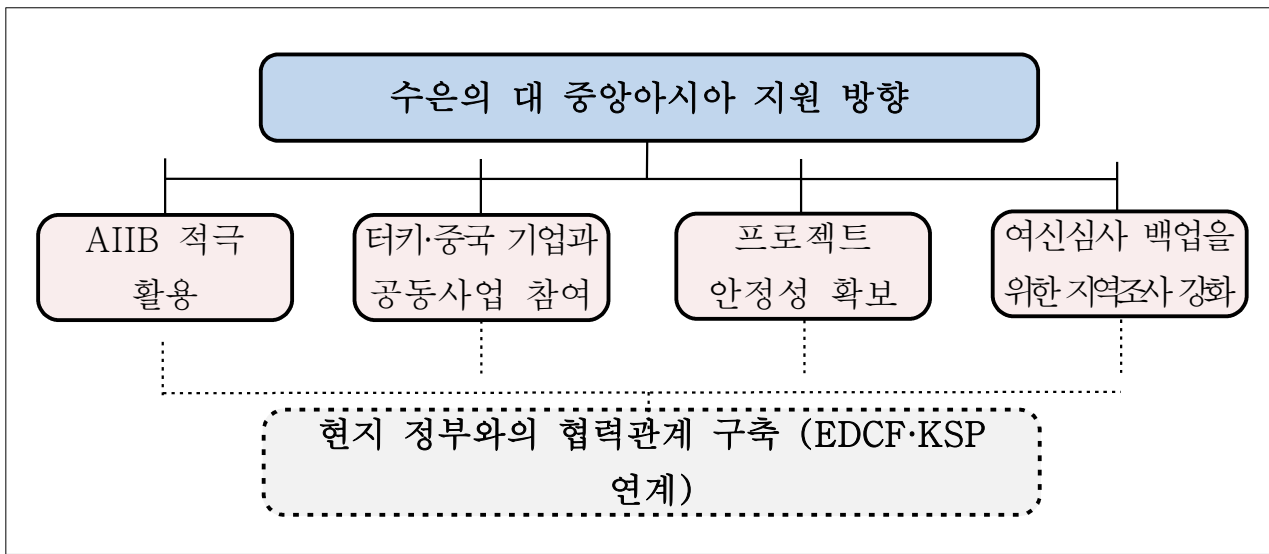
〈표 4〉 2016년 하반기 AIIB 지원 예정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 내용	AIIB 지원 규모 (전체 프로젝트 규모)	공동 지원기관 및 지원규모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순환 고속도로 (당행 지원 협의중)	75 (900)	- EBRD(150) - 기타 다자개발기구(IFC, ADB, IsDB) 및 상업은행(675)
	국내 도로망	미정 (2,500)	- WB(2,183) - 카자흐스탄 국영기업(305)
인도	송전망 현대화 사업	150 (283)	- 인도 전력청(133)
오만	철도 건설 사전조사	50 (66)	- 오만 정부(16)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300 (824)	- WB(390) - 파키스탄 수전력청 (125) - 파키스탄 국영 송배전공사(9)

Ⅲ. 당행의 對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방안

1. 당행의 對중아시아 진출 지원 방향



□ AIIB 적극 활용

- (AIIB 지원방식) 현재 AIIB는 전문인력 부족,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 ① 공공성이 강한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② 독자 지원보다는 EBRD, ADB 등 MDB 또는 현지 정부와 공동지원 방식으로 진행
- (당행,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노력) AIIB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공동 융자지원 발판 마련 필요
 - 협력강화 필요성 : ① 당행의 AIIB와의 공동지원 Track Record 확보 ⇒ 향후 우량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보 ② 정치적·재정적 리스크 부담 완화, ③ 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 진입 발판 마련
- (중아시아 지원 비중 확대 예상) AIIB는 설립 목적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완성에 있는 만큼 연선(沿線)상의 인프라 수요가 많은 중아시아 지원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

□ 당행 지원을 수반한 국내 건설사의 중국·터키 기업과 공동진출 유도

- (중국) AIIB를 통한 중아시아 자금 지원은 중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연결
 - 중아시아 중심 인프라 건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소요자금 대비 AIIB 등의 지원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 당행 공동융자 참여를 통해 아국 건설사들의 동 지역 인프라 수주 지원

- (터키)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유대가 깊어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 확보('범투르크경제권'의 중심국)
 - 중앙아시아 시장지배력이 큰 터키 건설사를 섭외, 공동 진출 노력 필요
 - EU, 일본 등의 기업은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수주에 전략적으로 터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 * 최근 일본 건설사가 터키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70억 달러 규모의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제안

□ 프로젝트 안정성 확보 방안 강구

- (현지 중앙정부의 지원 의사 확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이해 부족과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 미비로 심사 애로
 - 현지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정부 보증 등 채권보전 장치 마련 필요
- (MDB 등과의 공동유자로 리스크 분산)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프로젝트는 당행이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공동지원을 통해 재원 마련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원 성공
 - MDB와의 공동지원은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신용등급에 따른 여신 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과적
- (여신의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제고 및 한도부족 문제 해결) 당행 단독 지원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신용등급 및 여신한도 부족 우려가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우량 프로젝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 경제현황 및 법·제도의 변화 내용 지속 관찰로 여신 백업 기능 강화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고 에너지 자원과 광업·농업 위주의 산업구조여서 에너지 가격 등 외부 요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 관련 법·제도의 상이 및 정부의 지원의사 표명 등 국가별 프로젝트 발주 여건 및 관행이 다른데다 그동안 국내기업의 미진출로 심층적 국별 조사 정보가 부족한 실정 ⇒ 여신 심사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중앙아시아 전문 조사역 확충과 함께 여신부서의 상담 프로젝트 관련 조사 needs를 사전 파악하여 여신부서 연계 조사활동 강화 ⇒ 당행 현지사무소 (이스탄불, 타슈켄트) 적극 활용

□ EDCF·KSP 등 정부사업 확대를 통한 현지 정부와의 유대관계 강화

- (EDCF·KSP 연계) KSP 사업 자문 및 EDCF 지원 프로젝트와 금융지원 연계
 - (KSP) ECA 설립 자문, 에너지 효율화 정책 자문, 전자정부 구축 등 효율적 경제개발 운용을 위한 노하우 전수
 - (EDCF) 통신망 현대화, 하수처리장, 교육정보화, 병원 건립 등의 사업 추진과 함께 이와 관련한 인프라 건설의 금융 지원 연계
-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16.4) 및 플랜트·인프라 수주사절단 파견('16.9) 등 정부간 밀접한 협력채널 구축이 프로젝트 성사의 핵심 요건 (최근 3년간 VIP 순방, 경제공동위 개최 등 정부간 경제협력 16건)

확인자	소	장	권	우	석
작성자	팀	장	전	선	준